



파생상품 투자에 바이블 이중호입니다.

(02)3770-3482

joongho.lee@tongyang.co.kr



동양증권

외국인 투자자 행동은 언제까지?

Derivatives Analyst

이중호

3770-3482

joongho.lee@tongyang.co.kr



Why This Report

외국인 투자자의 응집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시장이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단기적인 수급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상승이 있었기에 하락 역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Investment Point

외국인 투자자 전방위적 매도로 시장 압박

- ▶ 전일 외국인 투자자 현물, 선물, 옵션 모든 부분에서 매도 진행. 특히 지속적인 비차익 PR 매도는 시장에 큰 압박
- ▶ 지금까지의 외국인 비차익 PR 매수 규모(5조원 이상). 전일 선물 미결제약정 증가 고려하면 외국인 매도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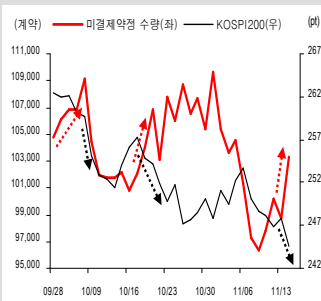
반등 신호 나타날 때까지는 보수적 대응 유효

- ▶ 대규모 선물 거래 증가나 시장 Basis 하락 나타나지 않음 → 아직 시장이 투매 과정은 아님
- ▶ 기초적인 시장 반등(선물 미결제약정 감소 동반한 시장 반등, 옵션 내재변동성 Gap 축소) 나타날 때까지 보수적 대응 필요

외국인 투자자 움직임은 현재 진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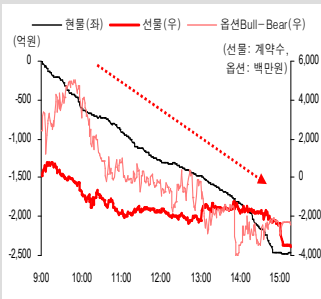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의 현재 움직임은 다음주 까지 지속될 것 전망
- 선물 미결제약정이 감소한 움직임이나 옵션 내재변동성 Gap 소멸을 기대

선물 미결제약정과 K200지수 추이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현, 선, 옵션 모두 매도세!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투자자 현물, 선물, 옵션 모두에서 매도 및 하락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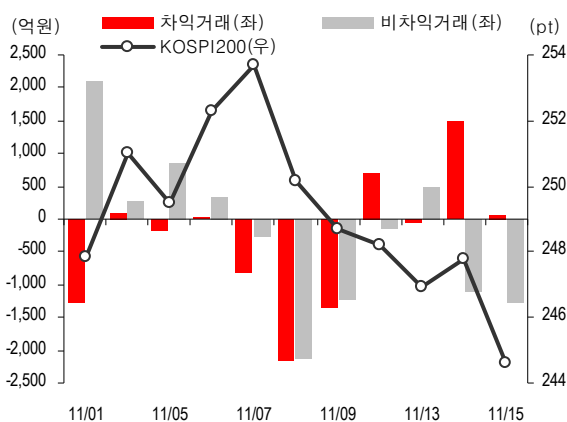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자의 전방위적인 매도에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이다. 전일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 선물, 옵션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매도를 기록하며 시장을 압박하였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비차익PR매도 지속은 시장에 매우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6영업일 중 5일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차익PR매도를 출회하며 시장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월요일 언급하였듯이 외국인 투자자의 청산 과정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즉 지금 정도의 청산이나 매도로 시장에 매도가 끝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차익거래 매수 분은 5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일 하락에 선물의 미결제약정이 증가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의 청산이 아닌 포지션의 설정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하락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선물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나 Basis과리차의 폭발적인 하락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 공포지수라고 일컬어 지는 지표 역시 아직은 안정적이다. 아직까지 시장이 투매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공세도 아직은 지켜낼만한 수준의 정도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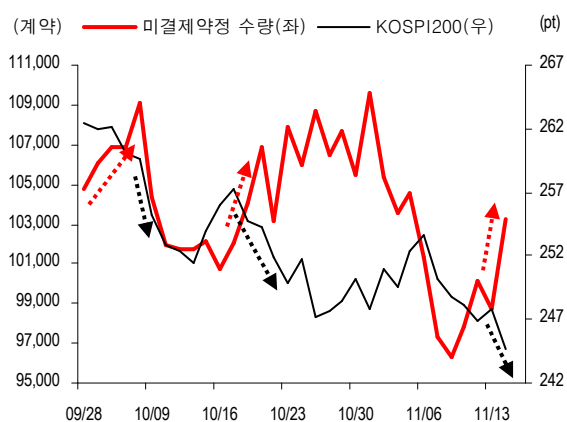
단기적으로 전저점 부근에서 선물 및 옵션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선물의 미결제약정이 감소하며 시장이 반등하거나 옵션 내재변동성 Gap이 소멸되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날 때가 시장의 반등이 기초적으로 나타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낮은 변동성 구간에서 설정된 포지션에 대해 변동성이 증가하는 부분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란 판단이다.

11월 프로그램매매와 KOSPI200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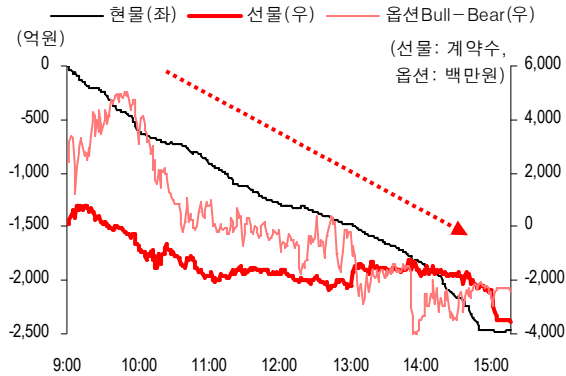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선물 최근월물 미결제약정 수량과 KOSPI200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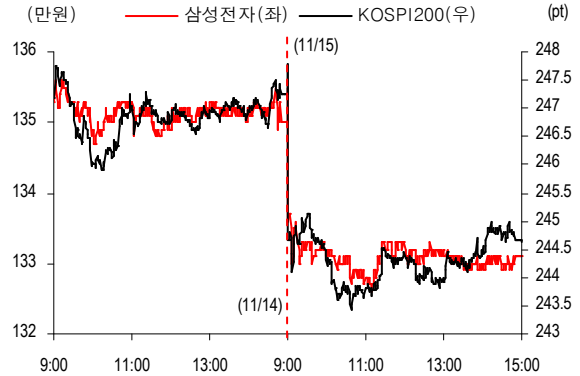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현물, 선물, 옵션 모두 매도포지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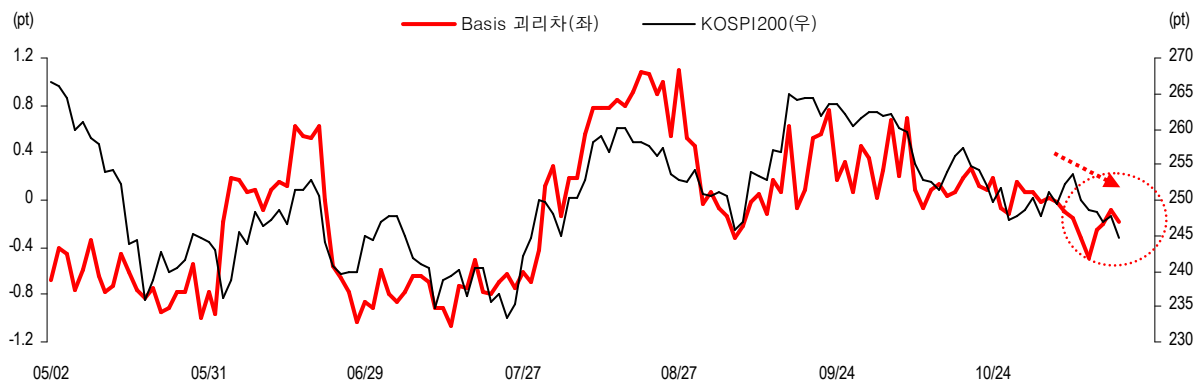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200과 삼성전자의 하락은 동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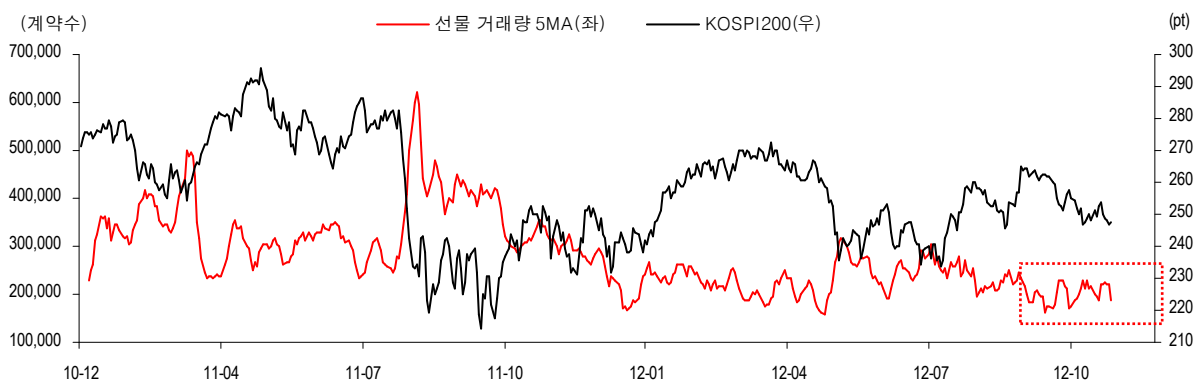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KOSPI200지수 Basis 괴리차와 동반 하락 (결국 지수는 Basis에 영향 받고 있음!)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

선물 거래량 크게 증가하지는 않아 KOSPI200지수의 하락은 급락은 아닐 것



자료: 동양증권 리서치센터